

우선 '약관대출'은 가입한 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통상 은행의 예금담보대출이나 주택 담보대출과 비슷한 개념이죠. 보험사는 이미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잡고 있기 때문에 손실을 볼 위험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가능하며 동시에 금리가 낮습니다. 또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으며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신용이 낮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는 통상 1.5% 내외인데요. 보험사에 따라 1%의 가산금리를 받는 곳도 있고 일부 보험사는 2.0%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기도 합니다.

가령 가입한 보험에서 적용하는 이율이 3%라고 하겠습니다. 이 상품에서 약관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는 4.5% 내외가 됩니다. 보험 이율+가산금리를 더해 약관대출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100만 원을 1개월 동안 사용하면 발생하는 이자는 약 3,750원(100만 원 × 4.5% ÷ 12)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하면 이자는 4만 5,000원 수준인 것입니다.

단 100만 원을 빌려온 개념이기 때문에 보험 적립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보험상품은 3%로 금리가 붙고 있기 때문에 실제 부담하는 돈은 가산금리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이 실제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가산금리 수준인 1.5% 내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1년 동안 쓰게 되면 4만 5,000원 중 보험 이율로 3만 원을 돌려받고, 1만 5,000원이 보험계약대출로 납입하는 이자가 됩니다.

보험 잔가치에 받는 적립금을  
아리 받는다고 생각하면 됨.

'중도인출'은 (대출이 아닌) 보험 적립금에서 일부를 꺼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금의 일부를 꺼내 쓰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내 보험 통장에 있는 내 돈을 꺼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자가 없으며 값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만기 이전에 중도인출한 돈을 다시 채워 넣지 않으면 만기환급금(적립금)이 줄어듭니다. 또 일부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한 돈을 상환할 경우 2% 내외의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을 중도인출하고 1개월 후 상환할 때 상환수수료가 2% 라면 2만 원의 수수료를 내면 됩니다. 1년 후 혹은 10년 후 상환해도 수수료는 동일하게 2만 원입니다. 상환수수료는 기간에 상관없이 1회만 발생합니다.

약관대출 vs. 중도인출		
약관대출	구분	중도인출
<u>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u>	의미	<u>가입한 보험의 적립금 일부를 인출하는 것</u>
<u>해지환급금의 50%에서 90% 한도</u>	가능 금액	<u>통상 적립금의 80% 한도</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립금액 및 보장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대출수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없음</li> </ul>	장점	<u>원금상환 및 이자 납입 의무가 없음</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금 상환 및 이자를 납입해야 함</li> <li>●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만기에 해지환급금이나 보험금이 감소할 수 있음</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환시 수수료가 있을 수 있음</li> <li>● 상환하지 않으면 만기에 적립금(해지환급금)이 감소함</li> </ul>
단기, 소액 자금이 필요할 때 유리	대출 전략	장기, 목돈이 필요할 때 유리